

거리두기 해제 뒤 소비 회복세 전남은 전국 3위·광주는 16위

5월 신용카드 사용액

전월비 각각 13.4%·4.1% 증가

음식·숙박 두 자릿수 늘었지만

의류·잡화·가전·자동차 등 부진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뒤에도 광주지역 소비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 5월 행락철을 맞아 숙박·음식점업과 의류·잡화, 가구·가전 부문 카드 지출이 전월보다 '두 자릿수' 늘었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역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카드 소비액은 광주 9626억원·전남 9064억원 등 1조 8690억원으로, 전월(1억7240억원)보다 8.4% (1450억원) 증가했다.

한 달 새 광주카드 소비액은 4.1%(9244억원→9626억원) 늘었고, 전남은 13.4%(7996억원→9064억원) 뛰었다.

전국 평균 카드 지출 증가율은 6.0%(55조1390억원→58조4514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4월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5월 카드 소비는 전년보다 '두 자

릿수' 증가했지만, 광주는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회복세가 더뎠다.

전달과 비교한 광주 카드 지출 증가율은 4.1%로, 서울(3.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낮았다.

반면 전남지역은 숙박·음식점업 회복세에 힘입어 카드 소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강원(16.2%)이었고, 제주(13.5%), 전남(13.4%) 등 대표적인 관광 거점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월 전남 숙박·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은 1947억원으로, 전달(1574억원)보다 23.7%(373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강원(32.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광주지역도 숙박·음식점업 카드 지출이 한 달 새 20.8%(1141억원→1378억원) 증가하면서 전국 평균 증가율(20.2%)을 웃돌았다.

하지만 광주 카드 지출 증가율은 나머지 종합소매, 의류·잡화, 가구·가전 등 업종에서 전국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다.

백화점과 마트 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종합소매 부문에서는 광주가 전달보다 10.8%(1765억원→195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남지역 증가율은 15.4%(1510억원→1742억원)로, 강원(16.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를 차지했다.

종합소매 외에도 광주는 의류·잡화(9.5% ↑)와 가구·가전(6.5%) 부문 증가율도 전국 평균(의류·잡화 9.7%, 가구·가전 6.9%)을 밑돌았다.

전남지역 의류·잡화 카드 사용액은 264억원에서 304억원으로, 15.2%(40억원)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가구·가전 소비 증가율도 20.7%(150억원→181억원)로 상위권에 들었다.

5월 카드 소비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달보다 증가했지만 신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종은 크게 부진했다.

지난 5월 광주 자동차 업종 카드 사용액은 1353억원으로, 전달(1594억원)보다 15.1%(-241억원)나 감소했다. 광주 감소 폭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감률은 1%에 그쳤고, 전남지역도 2.0%(305억원→311억원)에 머물렀다.

한편 국제 유가 급등 영향으로 광주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한 달 새 많이 늘어났다. 광주지역 연료 부문 카드 지출은 지난 5월 986억원으로, 전달(902억원)보다 9.3%(84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달(706억원) 지출보다 무려 39.7%(28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5월 연료 부문 카드 지출 증가율(전달비교)은 전국 평균 6.4%(3조3572억원→3조5705억원)이고, 전남도 6.4%(1467억원→1561억원)를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성수 전문건설협회 전남 회장 은탑산업훈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고성수(사진) 회장이 18일 열린 '2022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인 고성수 회장은 지난 37년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사품질을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회장은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공식적인 기념일에 생각지 못한 큰 상을 받아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도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4000여 전남 전문건설인들과 이 영예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분기 가계소득 역대 최고폭 늘었지만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비성향 통계 작성 이래 최저

2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소비 증가율은 절반에 그쳤다.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쓴 돈의 비중(평균 소비성향)은 2분기 기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0.4%에 불과했다.

상품·서비스 가격이 오른 탓에 가계가 소비에 쓴 돈이 늘긴 했지만, 소비 자체를 늘린 건 아니라는 의미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7% 증가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하면 6.9% 늘었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일상 회복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 취업자 수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근로 소득(5.3%)·사업(14.9%)·이전소득(44.9%)이 모두 늘어난 결과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1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2분기 기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지만, 소득 증가율(12.7%)에는 크게 못 미친다.

평균 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5.2%포인트 하락

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인 66.4%를 기록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일시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약 21조원가량 지원되면서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며 "그러다 보니 소득과 소비 간 격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소비 지출이 5.8% 증가한 것은 대체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고 가계가 씀씀이를 키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해와 전전년 2분기에는 실질소비 증가율이 각각 1.3%, 1.2%였다.

예를 들어 교통 지출은 1년 전보다 11.8%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8% 감소했다. 운송기구연료비만 따로 떼어 보면 명목 증가율 27.8%, 실질 증가율 -5.4%로 그 격차가 더 도드라진다.

기름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소비액이 늘었지만, 실제로는 자가용 운행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다.

소비지출은 오락·문화(19.8%), 음식·숙박(17.0%), 의류·신발(12.5%), 교통(11.8%), 교육(11.1%) 등에서 늘었다.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9.4%), 주거·수도·광열(-3.3%), 주류·담배(-3.0%), 식료품·비주류음료(-1.8%) 등에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전반적인 고용 및 업황 개선세, 소득 증가세에도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물가 안정을 통한 저소득층 부담 완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산단 입주기업

혈액 수급난 극복 헌혈 행사

광주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코로나19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한 헌혈에 동참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8일 'KICOX 사랑의 헌혈 활동'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헌혈에는 광주 첨단 ESG 확산을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 커뮤니티와 산단 입주기업들이 함께했다.

'광주 첨단 ESG 커뮤니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산단 내 14개 관계기관과 기업이 모여 지난해 5월 결성했다.

이 기구는 지역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김치 나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체 헌혈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버스를 지원받아 진행했다. 산단공 광주본부와 광주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광주지역사업평가단,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커뮤니티 기관과 하이테크센터 입주기업 임직원이 참여했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본부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을 통해 얻은 증서는 산재 손해를 입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커뮤니티 기관과 기업 임직원들과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지역 곳곳을 찾아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진KDN 어린이 직업체험 특화 프로그램 한진KDN이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어린이 직업체험 특화 프로그램'(키지니아) 입장권을 전달한 나주지역 아동센터와 보육시설 18곳 어린이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사장에서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한진KDN 제공>

전력거래소 비닐봉지 줄이기 천가방 쓰기 운동

광주 전통시장 3곳에 750장 전달

한국전력거래소가 광주시민들과 함께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천 가방 쓰기 운동에 나섰다. 전력거래소는 '비닐봉지 그만 부메랑 에코백' 캠페인을 광주 서구·광산구·북구 주민봉사단 등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운동은 올해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 의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전력거래소를 포함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17개 공공기관이 동참한다.

이날 전력거래소 모든 직원은 총 750장의 천 가방을 지역 자원센터에 전달했다. 모인 천 가방은 세탁 후 광주지역 전통시장 3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석 전력거래소 ESG 경영팀 팀장은 "이번 캠페인은 쓰지 않는 천 가방을 기부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무지구(상가매매)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p>1) 감정가 (시세) 9억</p> <p>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p> <p>연수익 9천만</p> <p>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p> <p>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